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조교수)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제적 피해는 속출되고 있다. 금융사고하면 상호저축은행을 떠올릴 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실추는 컸다,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기반을 둔 기획 금융(PF)대출에 영업집중하여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규모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및 본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고위험으로서 PF 등에 대한 대출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이었다. 행태 재무론 관점에서 경영자의 자기과신, 통제력 환상, 집착(Anchoring) 등에 의한 기존 영업 관행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분산(Portfolio) 투자원칙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루어졌다. 의사결정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의 지분자 및 경영층의 도덕적인 해이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면서 바젤 자기자본규제로서 BIS 비율에 의한 건전성지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 BIS 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도구로서 악용되기도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실규모는 비례하여 확장 되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은 경영진이 공모하여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계열사의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입하여 의도적인 부실을 초래하였다. 당초 영세 서민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이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금고로 악용되었다. 해외로까지 특수목적회사를 확장하여 정상대출로 위장하여 개인 창구로서 상호저축은행을 전락시켰다.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분식회계도 회계법인의 묵인 하에 행해졌다. 조직형태가 소수의 지분자로서 주식회사라는 점도 상호저축은행의 모험적인 자산운영은 예견되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그 여건들을 임의로 조성,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였다. 이는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 선의의 예금거래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이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의 지표로서 BIS 비율의 한국사회에서 유효성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을 정상영업과 영업정지로 나누어 도산된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로짓분석을 적용하여 신뢰성 평가지표로서 그 유효성 적합을 검증한다.

주제어: BIS 비율, 상호저축은행, 기획 금융, 건전성 지표, 특수목적회사(SPC)

· 접수일(2020. 6. 24), 수정일(2020. 6. 30), 게재확정일(2020. 7. 24), 게재일(2020. 7. 31)

* 이 논문은 행태 재무를 추가 보완하여 학위논문, 단행본으로 이후 완결

BIS Ratio as Financially Sound Index for Mutual Savings Banks

Mooseong Lee(Gwangju University)

Abstract

Mutual Savings Banks are high risks that the real estate market does not ensure even physical collateral are stagnant, always the risk of bankruptcy by concentrating its sales on PF(Project Finance) loans of high returns exposure was. The small mutual savings banks than large savings banks in asset are to operate stopping the possibility of revealing again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and present papers to be high. PF, etc. Easy business practices as the risk is thoroughly portfolio investment principles while ignoring it has been made. Decision-makers as minority interests groups extensively did not perform moral hazard management, even though credibility was completely destroyed on quality indicators as due BIS ratio of the Basel capital requirements. Initially poor people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SMEs suffering in funds are financed by mutual savings banks. But mutual savings banks were not operated as a false stomach thoroughly personal window to normal lending by expanding the special purpose company overseas. Risk in accounting fraud for setting the weights randomly on assets openly under the connivance of the accounting audit firms done such a moral hazard was severely than any other organization. I could not find the illegal loans of the Savings Bank as a loan loss, accounting firm did not reflect an appropriate responsibility of the external auditors. Guided directors of relaxed government poli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or the savings bank business normalization also have not been operated to mutual savings bank customers' investments and deposits focus funding on high-risk PF projects such as risk assets in the real estate sector without ensuring investment Saints regarded as money.

This paper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Korea society of the BIS ratio as an indicator of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ad to health indicator derivation of a mutual savings bank into a mutual savings bank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and not utilizing the time-series methods by Basel as the existing capital requirements. It analyzed on their efficacy due to the debt ratio as the evaluation. Previous researches and the introduction back-drop for conclusions knotted

· Received: June 24, 2020
Accepted: July 24, 2020

Revised: June 30, 2020
Published: July 31, 2020

with proposals for quality indicators derived can be utilized effectively. Empirical targeted professionals in charge of supervision in the long mutual savings bank supervisory agency.

Keywords: BIS Ratio, Mutual Saving Banks, PF, Sound Index, Special Purpose Company(SPC)

Contents

I. Introduction	V. Analysis of Actual Proof
1.1 Reseach Background & Purpose	5.1 Settnng-up Samples
1.2 Object & Methology of Study	5.2 Basic Statistics
II. Theological Background & Precedent Study	5.3 Test of Verification Result
2.1 Theological Background	VI. Verification Result & Interpretation
2.2 Precedent Study	6.1 Reliability & Validity for Measuring
III. Data Gathering	6.2 Fidelity for Ohlson's Modeling
IV. Research Model, Estimation & Formulating Hyphoses	6.3 Raw Material Characteristics
4.1 Research Model	6.4 Result Analyses
4.2 Estimation	VII. Conclusions
4.3 Formulating Hyphotheses	<References>

I. 서 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다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 금융산업의 전근대적인 관행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 예측에 대한 지표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1999년 IMF환란위기,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 금융산업의 취약점을 노출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그 신뢰성 실추가 더 크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BIS비율이 활용되어 왔다. 그 유용성에 대하여 학계 등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BIS비율의 무용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5년 전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로 BIS비율에 대한 신뢰성은 추락하였고 계량적인 실증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BIS비율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기존의 정량 분석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 사례를 대상으로 이를 집중 분석하는 동기가 되었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평가에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에 대하여 BIS비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최고경영자들의 행태 재무론에 의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임의적으로 조작 하는 도덕적인 해이에 주목하였다. 재무의사결정자들의 과잉낙관에 의한 심리적인 함정에 의해 신뢰성 있는 정확한 기법들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¹ 실무현장 사례도 연구

의 동인으로 작동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엄격한 자기규제로서 BIS비율이 객관적으로 산출된다면 BIS비율이 부실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지표로서 유효하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연구의 일부 BIS비율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박논리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하금융인 사금융의 제도권으로 정부의 작위적인 유인 단계인 상호금고 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범하였다². 설립초기인 1972년 말 350개에 달하였던 상호저축은행 수는 부실 저축은행의 정비 등으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다. 그 후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이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퇴출 또는 합병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PF3대출의 부실화 등으로 1997년 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 수가 2000년 말에는 147개 그리고 2013년 6월 말에는 91개로 크게 감소하였다.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초기엔 버스 준공영제 의 결손 보전방식인 비효율성의 보상(Rewarding

² 1972년 8.3조치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국회에서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1975년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 취소 또는 합병 정리과정을 겪기도 했다. 한때 전국 250여 곳에 달하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15년 9월 말 현재 정상영업 79개로 줄어들었다. 주식회사 형태로 소수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한 금융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며 고객들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³ 미래 현금흐름으로서 사업자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Project Finance의 약칭이다.

⁴ 금융기관경영론, 김태호·문선주, 탐북스, 138-139쪽, 2015.

¹ Behavioral Corporate Finance, Hersh Shefrin, McGraw-Hill Irwin, 6-7쪽, 2007.

inefficiency)⁵형태를 상당부분 차단하고 현재는 사금고화 방지, 공신력제고 및 건전성유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업무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여신 업무로는 일반자금대출 및 어음대출이 기본업무 이나 수신과 연계된 계약금액외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종합통장 대출과 주택자금대출 등도 그 대상들이다. 또한 지역금융 활성화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2순위 담보대출, 수산물 담보대출, 미용사 대출, pc방 창업대출, 개인택시 담보대출 등도 취급하고 있다.⁶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의 성격상 건전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해외 선진금융 기법의 일방적 수용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자기자본규제로서 BIS 비율이 일정부분 건전성 지표로서 활용은 되고 있었다. 실제로는 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 등을 통한 회계수치조작, 자의적인 위험가중치 부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합치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전 예측력이다. 건전성을 위한 예측은 정보의 시의성이 동반되어야만 불특정 다수 거래자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실에 대한 예측력이 아주 높게 표출된다. 기획재정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대한 규제는 상호저축은행의 공신력 제고와 경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여수신 업무별로 취급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⁷

그러나 경제외적인 변수로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부실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건전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적격 여부를 다수 거래자들이 피해에 이르지 않도록 충분한 인식이 사전에 신호로서 나타나야 한다. 시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 건전성에 대한 시의적절한 예측정보의 제도로써 구축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1.2 연구목적

상호저축은행의 우량으로서 건전성의 선택 기준은 8·8비율⁸ 이었다. 8·8비율이 충족된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한 투자를 뜻하는 것으로 한때는 통용되었다. 2010년도까지는 8·8클럽 제도는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의 선택 기준이었다. 2011년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 다수의 저축은행⁹이 영업정지 직전 공식보고서의 BIS 비율이 8%이상이었다. BIS 비율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우량 상호저축으로 간주를 하고 거래하였던 다수의 고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발생 후순위채에 투자하였거나 투자자와 예금자들은 건전성지표를 단순히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

⁷ 금융기관론, 강길환·김주일·안병관, 탐북스, 219쪽, 2014.

⁸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분류비율 8%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을 말한다. BIS 비율이 8%이상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이 높다는 것이고, 고정이하 여신분류비율이 8%이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낮다는 것으로서 우량기준의 잣대로 활용되었다.

⁹ 솔로몬, 부산, 제일,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⁵ 버스 준 공영제에 관한 연구: 유인시스템 관점에서, 양채열, 2013년 한국재무학회 추계 학술대회, 84쪽, 2013.

⁶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535-536쪽, 2011.

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BIS 비율에 의한 상호저축에 대한 건전성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새로운 건전성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건전성 연구모형들의 실증 사례를 통하여 BIS 비율을 활용한 건전성 평가에 대한 유효성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최근에 발표된 기존 학계 연구 결론으로서 BIS비율의 신뢰성 추락에 의한 것이 아님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2년 5월 이전 연구결과에 대하여 2012년 6월 이후 자료로서 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BIS비율은 상호저축은행 부실도 예측에 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종전 연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과 일부 경영자들의 도덕성 해이에 그 주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과 방법

1.2.1 연구대상

검증자료 대상기간은 2012년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다. 동 기간 중 영업 정지된 11개의 상호저축은행과 정상영업중인 79개 상호저축은행이 집중 분석된다.

2012년 5월 이전에도 일부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되어 해체되지 않고 이전, 합병된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에 의해 BIS비율의 유효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사례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BIS비율이 높으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은 높다고 평가된다. 부채비율이 낮아도 재무건전성은 높다. 분석회계 없이 정상적으로 BIS비율 등 지표가 작성되었

다면 그 수치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판단의 원인과 처방으로서 요인이 되어 구체적인 유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1.2.2 연구방법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상영업,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을 전수 통계조사 하였다.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t-1) 과 직전 전(t-2)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재무자료를 중심으로 BIS비율의 유효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덕적인 해이를 고려하지 않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¹⁰

선행 연구인 2012년 5월 이전까지의 조사된 연구와 비교검증을 통하여 그 유의미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유효성에 대한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물이 주 연구 비교대상이다. 비교대상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원 자료의 폐기와 자료접근의 원천적인 차단 등으로 연구된 대상 자료들을 확보 할 수 없었다. 입수 가능한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기존 연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보충 활용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이 원용한 자료입수의 한계로 이전 자료의 검증을 통한 접근은 쉽지 않았다.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도출된 연구결과를 본 논문의 과제와 비교한 방식을 택하였다.

¹⁰ 글로벌 재무전략, 민상기·정창영, 명경사, 138쪽, 201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회계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회계모형으로 판별분석, 프로빗 분석, 로짓(Logit)분석이 기업 등 부도를 사전에 추정하는 모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판별분석은 독립변수의 결합분포가 정규분포를 띠고 각 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충족할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단점으로는 기본적인 가정에 위배되어 그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계수의 유의성 검증이 불가능 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빗 분석은 누적 표준정규분포함수를 가정하고 로짓모형과 마찬가지로 최우 추정법에 기초하고 우도비율지수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취한다.

로짓(Logit) 모형은 예측치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누적확률 밀도함수(F)를 도출하여 F는 길게 늘어진 S자형을 갖게 한다. 로짓분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형을 추정하는 목적은 독립변수 값에 기초하여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절사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¹¹ '1'이 될 확률을, 미달하면 '0'의 값을 취하도록 예측 설계한다.¹²

2.2 선행연구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지표로서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연구는 최근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학계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논문이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가장 최근 연구¹³이다. 이들의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예측 모형을 고정이하 여신 비율, 총자산 영업이익률, 경비율, 유동비율, 예금 대출비율을 포함한 BIS비율을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추가적으로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기존의 BIS비율과 부실예측모형과의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건전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모형의 등장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부채비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스템 전체적 과급효과라는 것은 결국 한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

2004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영업 정지된 총 36개 저축은행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정상영업 상태에 있는 총 7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예측에 관한 로짓(logit)분석¹⁵을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은 실시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채비율은 영업정지 2년 전(t-2)과 1년 전(t-1)에 모두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BIS비율은 영업정지 1년 전(t-1)에만 약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은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무용하다는 것이다. 대안 지표로서 부채비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은 BIS비율과 부채비

¹³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 3~7쪽 BIS비율 관련 상호저축은행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을 참고하여 일부 정리하였다.

¹⁴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세계경제연구소·IMF, 247쪽, 2010.

¹⁵ 곡선형태의 로짓(Logit) 모형을 직선 형태로 변환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의 양변에 자연 로그(Log)를 취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독립변수에 대한 하나의 선형 모형으로 전환한다(배현웅, 방성완, R과 함께하는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우사, 73쪽, 2013).

¹¹ 선형회귀모형과 유사하게 1에 근접하면 1로 간주

¹² 2판 금융계량분석, 조담, 청람, 140~2쪽, 2012.

율을 동시에 포함하여 영업정지 1년 전($t-1$)과 2년 전($t-2$) 시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으로서 BIS비율과 부채비율의 차이와 예측변수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¹⁶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1년 전($t-1$)이 영업정지 2년 전($t-2$)보다 높은 예측력을 보여 주고 있다. 부채비율을 이용한 부실예측모형이 BIS비율 부실예측모형보다 두 기간 동안 약간 높은 검증의 우월성을 제시하였다. BIS 비율 부실예측력은 '1년 전'이 '2년 전'에 비하여 높지만 동 기간에 행해진 부채비율에 의한 예측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예측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BIS 비율모형과 부채 비율모형으로 예측한 결과를 실제로 관찰한 값과 비교한 결과로서 부채 비율모형은 영업정지 2년, 1년 전의 분류 정확도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추가 분석한 BIS 비율과 부채비율을 결합한 상호저축은행 부실 예측모형에서는 부채비율만 영업정지 2년, 1년 전인 직전년도 모두 유의한 통계 결과를 수치로서 나타내 주고 있다.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 등의 연구는 BIS 비율은 영업정지 직전($t-1$) 공시에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시켰다.

그러나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연구는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부채비율이 BIS비율보다 부실도 사전 평가에 있어서 높다는 것은 그 수치 자체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의 채무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¹⁷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저

축은행도 부채초과로 인하여 기업에 적합한 부채비율에 의한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상호저축은행에도 부분 대응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레버리지 형태는 재무상태표의 규모 및 구성에 변화를 주고 통화량, 민간신용, 유동성창출 등 유동성지표에 영향을 준다.¹⁸

BIS비율 자체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은 그 측정에 대한 속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금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부가를 창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고유한 역할도 고려하지 않았다. 기업에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실의 기준점으로 삼는 그 한계 부채비율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동 연구는 BIS비율이 도입된 배경을 무시하고 상호저축은행도 부채비율이 건전성 지표로 유효하다는 단순한 결론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BIS비율에 대한 조작으로서 임의성의 개입이 BIS비율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⁹ 다만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계에서 이에 대한 반론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다년간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전문 감독관들은 학계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다르다. 이들은 BIS비율은 결코 건전성 평가 지표로서 무용하지는 않는다는 일치된 의견이다. 상호저축은행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분소유자 등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하여 BIS

¹⁶ 강선민, 홍인태, Shun Ji Jin, BIS비율과 부채비율: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경영학연구 제42권제1호, 18쪽, 2013.2

¹⁷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불균형(Les disequilibres financiers internationaux), Anton Brender 지음/서일진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64쪽, 2009.

¹⁸ 이승환, 은행의 레버리지형태와 유동성 창출, 한국금융학회, <금융연구> 제25권 2호, 2011. 141쪽

¹⁹ 대부분 연구들은 재무적인 접근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소재, 개선방안, 고객보호의 차원에서 역할 등 통계적 실증분석보다는 사실적 기술이다.

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 등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다량의 부실 사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짠 각본처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탐욕과 부도덕이라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벌어진 것이다.²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이해적인 편익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견해들이 일선 실무 종사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BIS비율 자체의 신뢰도보다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외적인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에 의해 BIS비율이 임의적으로 조작되어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부채비율이 BIS비율보다 부실여부 확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더 적합하다는 논거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BIS비율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보다도 금융기관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서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최근 연구는 부분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시의성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자인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연구는 부채비율은 BIS비율보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예측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유효성이 있는 부채비율을 금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감독기관은 기존의 BIS 비율에 대한 그 실효성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여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시의 적절하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보다 앞서 발표된 노진호, 이종수(2011)의 연구는 영업 정지된 8개의 상호저축은행²¹을 주요한 대상으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진호, 이종수(2011)의 연구에서 기존 적기 시정조치 기준(BIS 비율 5%)을 넘은 상호저축이 적기 시정조치 1년 전에는 3개의 상호저축은행이었다. 8·8클럽으로서 우량 상호저축은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도 4개 이어서 BIS비율이 무용하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평가된다. 노진호, 이종수(2011)의 연구는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노진호, 이종수(2011)의 연구에 기초하여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연구는 BIS비율보다 부채비율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평가지표로 유효하다는 확장된 결론을 내렸다.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과 마찬가지로 노진호, 이종수(2011)도 BIS비율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담당자들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조작되어 공시된 재무수치만을 단순하게 분석하여 그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도덕적인 해이에 의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 분석에 검증을 확실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2003년 외환은행의 조작된 BIS비율 공시 등 극히 예외적인 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제1금융권에서의 BIS비율은 여전히 건전성평가로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²² 제1금융권 은행

²⁰ 금융의 배신, 배성진·김진옥, 맛있는 책(금융소비자협회), 117쪽, 2012.

²¹ 삼화, 대전, 부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상호저축은행

²² 은행의 BIS비율은 기준과 구성내용에 있어 상호저축은행과 다르고 임의성도 많이 배제되어 있다.

<표 1> 기준 기간(2012년5월) 전후 주요 연구결과

항목	상호저축은행 조기예측 모형 연구결과 차이점 ²³			비고
대상 기간	2012년 5월 이전 (기존 연구) ²⁴	2012년 6월 이후		
		본 논문	기타 논문 ²⁵	
BIS 비율	무용 ²⁶	유용(대표적 조기예측 비율) ²⁷	유용	
부채 비율	매우 유용(대표적 조기예측 모형)	BIS비율에 비해 유용성 떨어짐	부채비율에 대한 직접 기술 없음	본 논문에선 BIS비율 보조지표론 유용성 확인
공시 시점	공시일 가까울수록 유용(t-2기 무용, t-1기 상대적 유용)	공시일 무관(2년 기간엔 t-2, t-1기 동일하게 유용)	공시시점을 직접 다루지 않음	
기 타	분식회계 등 재무수치 조작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무시한 단순 연구결과 도덕적해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BIS비율은 부실조기예측 지표로 유용			

들의 경우는 지배구조의 특성상 이해관계자 몇 사람들에 의하여 BIS비율에 대하여 자의성을 갖는 임의적인 수치조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으로서 론스타에 매각되기 직전 외환은행의 BIS비율 조작이 대표적 사례이다. 외환은행의 경우도 임의성에 의하여 4차례나 BIS 비율 수치들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BIS비율에 대한 임의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이는 어느 금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BIS비율 자체에 의한 결함보다는 의도를 갖고 도덕적인 해이에 의한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사전 공모된 형식들이 BIS비율에 대하여 대중들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 노진호, 이종수(2011)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 대부분이 도덕적인 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마치 BIS비율은 건전성 지표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후록(2015)은 BIS비율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건전성 비율로 적합한 부채비율에 대하여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통계모형으로 판별, 로짓과 지능모형으로서 신경망분석을 부실예측 모형의 실증사례 검증으로서 활용하였다.

심재만(2019)은 자산규모 및 PF대출 방식에 주목하여 로짓분석에 의하여 BIS 비율의 유용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강선민 등(2013) 이후에 발표된 두 논문에서는 부채비율이 BIS비율보다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부채비율로 BIS비율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하였다.

위 <표 1>은 기존 선행연구와 본 논문 연구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행태 재무론에 의한 기존 연구는 주로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에 있어 가격 상승 시는 주식을 매도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주식 하락 시엔 이러한 하락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하려는 경향 등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관련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고 있다. 정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전문 경영자들의 주주이해에 대치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M&A 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경영자보상에 따라 경영위험이 다르고 다양한 성과연계 보수수단을 활용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유인정책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는 되고 있다.²⁸ 상호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본 논문에서 관

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대리모형이다.

III. 자료 수집

기간별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존 연구 자료는 자료원의 낮은 신뢰도와 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분만 활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 11개, 2015년 12월말 현재 정상영업중인 79개로서 모집단 전체를 당초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중 유효한 경영공시로서 자료 분석이 가능한 영업정지저축은행 7개, 정상영업중인 73개를 전수검사로서 그 자료를 활용하였다.²⁹ 그 기간은 영업정지중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t-1), 직전 전 년(t-2) 2개의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2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정상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2015년 6월말 공시일자를 기준으로 직전(t-1), 직전 전 년(t-2)이 기간 구분대상이다.³⁰ 두 기간 모두 상호저축은행 중앙연합회

²³ 본 논문은 로짓(Logit) 통계기법을 활용

²⁴ 문성주, 이광노(2006)는 BIS비율 계산방법, 정형권(2007)은 BIS비율 산출시점, 노진호, 이종수(2011)는 BIS비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연구를 전개

²⁵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2015년 성균관대 이후록), 저축은행부실 결정요인(2019년 명지대 심재만) 두 박사학위논문 중심으로 기술

²⁶ 강성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은 아래와 같은 예측력 차이로 인해 BIS비율의 무용을 주장(경영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3년 2월 발간 18쪽 <표 8> 연구모형(1)과 (2)의 예측력비교 참조)

모형차이	영업정지 2년전(t-2)	영업정지 1년전(t-1)
연구모형1(BIS비율)	80.6%	85.8%
연구모형2(부채비율)	82.8%	87.5%
예측력 차이	-2.2%	-1.7%

²⁷ 다중회귀 로짓(Logit)분석에 의한 본 논문결과

모형차이	영업정지 2년전(t-2)	영업정지 1년전(t-1)
연구모형1(BIS비율)	100.0%	100.0%
연구모형2(부채비율)	100.0%	100.0%
예측력 차이	0.0%	0.0%

²⁸ 송동업, 경영자보상, 기업지배구조, 경영위험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4, 123쪽.

²⁹ 기업부실예측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과 비교대상 집단 간의 비교시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2, 1:3 정도로 자산규모별, 자본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대응표본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정상영업과 영업정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총자산기준 영업정지 저축은행 1 :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 3의 대응표본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결과는 비슷하였다.

³⁰ 비교대상이 된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연구와는 다르게 특정 공시일자를 기준으로 (t-1), (t-2)로 기간 설정하였던 것은 영업 정지된 특정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시점 직전 공시일

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엔 상호저축은행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비공개된 자료도 연구목적만을 전제로 사전허락을 얻어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증연구로 분석되지 않은 2012년 6월말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재무정보는 당초 공시 수치를 활용하되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항목은 오류를 확인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수정, 통계처리에 적합하게 이용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진다. 정기공시는 3개월 분기단위로써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공시가 이루어진다.³¹ 수시는 특정 사건 발생 시 금융감독당국의 요청 등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자료는 사업보고서 정기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공시 자료도 참조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논문들과 비교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실증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던 2012년 5월 이전 자료를 활용코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에 대한 어려움 등 자료원의 원천적인 차단 등으로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그들의 연구시점 이후인 2012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입수하여 이를 실증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 원으로 활용하였다.

자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누계로서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표본으로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정상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의 모형설정을 위한 변수들의 수치들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기간 구분하여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³¹ 실제공시일자는 공시기준일 2개월이 지나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 완료된다.

IV. 연구모형³², 추정 및 가설정립

BIS비율이 높을수록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은 높아진다. 부채비율의 경우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은 높아진다. BIS비율과 부채비율은 상호 보완목적으로 재무건전성 예측 평가지표로 동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정량적 접근을 주 분석으로 정성적 분석을 보완적인 방법으로 BIS비율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행태 재무론의 구체적인 속성들이 경영자들에게 배제된 도덕적인 해이가 없다는 전제하여 BIS비율, 부채비율을 별도로, 동시에 활용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4.1 연구모형

과거 회계수치들을 활용한 정량적인 회계모형으로서 판별분석, 프로빗분석, 로짓분석이 기업 등 부도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로짓분석을 기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채택하였다.³³

로짓(Logit)분석을 수정한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식을 BIS비율, 부채비율, BIS비율+부채비율 등의 주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³² 모형에 대한 수식부분은 기간별 비교(2004.1-2012.5과 2012.6-2015.12)를 위해 강성민, 황인태, Shun Ji Jin(2013) 모형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

³³ 로짓분석과 별도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은 참조목적으로 그 모형을 분석하였다.

$$MSBi,t = \alpha 1 + \beta 1BISi,t-1 + \beta 2FLTLi,t-1 + \beta 3ACDi,t-1 + \beta 4DREi,t-1 + \beta 5TAOEi,t-1 + \beta 6LnTAi,t-1 + \beta 7ROEi,t-1 + \epsilon i,t-1 \quad (1)$$

$$MSBi,t = \alpha 1 + \beta 1LEVi,t-1 + \beta 2FLTLi,t-1 + \beta 3CACDi,t-1 + \beta 4DREi,t-1 + \beta 5TAOEi,t-1 + \beta 6LnTAi,t-1 + \beta 7ROEi,t-1 + \epsilon i,t-1 \quad (2)$$

$$MSBi,t = \alpha 1 + \beta 1BISi,t-1 + \beta 2LEVi,t-1 + \beta 3FLTLi,t-1 + \beta 4CACDi,t-1 + \beta 5DREi,t-1 + \beta 6TAOEi,t-1 + \beta 7LnTAi,t-1 + \beta 8ROEi,t-1 + \epsilon i,t-1 \quad (3)$$

모형 (1), (2), (3)에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변수	변수정의
$MSBi,t$	i 상호저축은행 t 연도에 영업정지 되었으면 1, 아니면 0
$BIS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BIS비율
$LEV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FLTL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분류여신/총여신)
$CACD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DRE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예대비율(대출채권/예수부채)
$TAOE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총자산이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계)
$LnTA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자산규모(Log자산총계)
$ROE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자기자본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
$BIS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BIS비율
$LEV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FLTL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분류여신/총여신)
$CACD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DRE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예대비율(대출채권/예수부채)
$TAOE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총자산이익율(당기순이익/자산총계)
$LnTA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자산규모(Log자산총계)
$ROEi,t-2$	i 상호저축은행 t-2 연도의 자기자본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
$\alpha 1$	i 상호저축은행 주어진(Default) 상수 값
$\epsilon i,t-1$	i 상호저축은행 t-1 연도의 편차오류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공시내용의 구성항목을 부분 전환하여 변수로 선정 활용하였다.³⁴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유동성비율, 예대비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소액신용대출금액,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 등이 상호저축은행연합회에서 회원사들에게 권장하는 공시내용이다.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주요 공시하고 있어 소액신용대출 연체비율을 제외하고 조직규모를 포함하는 등 일부를 조정 한 변수로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4.2 추정

$MSBi,t$ 의 βn $BISi,t-1$ 에서 $\beta n < 0$

$MSBi,t$ 의 βn $LEVi,t-1$ 에서 $\beta n > 0$

³⁴ 정기공시 시 고정이하여신비율, BIS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예대비율, 총자산이익률, 소액연체비율 등이 표준화된 주요경영공시 내용이다.

4.3 가설정립

4.3.1 연구문제: BIS비율 및 부채비율과 재무건전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3.2 연구문제 : 부채비율은 BIS비율의 보조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

가설 1. BIS비율이 높으면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은 높다.(MSB_{i,t}의 β_n IS_{i,t} - 1에서 $\beta_n < 0$)

가설 2. 부채비율이 낮으면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은 높다.(MSB_{i,t}의 β_n LEV_{i,t} - 1에서 $\beta_n > 0$)

가설 3. 도덕적인 해이는 BIS비율의 유효성을 훼손한다.

이, 경영관리능력과 수익성은 총자산이익률, 그리고 유동성은 유동성비율이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예대비율이 유동성비율로 추가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적정 표준화된 기본비율을 어림할 수 있다.

5.1.3 원 자료(raw materials)의 특성

금융 감독기관의 사전 검증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공시된 재무수치들이다. 통계 분석을 위한 재무자료들이 불완전 공시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상호저축은행들을 제외하였다. 영업정지 11개 업체 중 4개 업체, 정상영업 상호저축은행 79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전수 조사하여 자료에 있어서 표본선정의 임의성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

V. 실증분석

5.1 표본선정

5.1.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계량적 측정도구는 최근의 자료일수록 그 신뢰도가 높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높게 나타난다. 통계분석의 대상인 본 자료들이 최근 입수된 것일수록 이해당사자인 상호저축은행 경영층에 의한 자의적인 수치조작이 감독당국의 엄격한 준칙 범위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5.1.2 Ohlson 로짓 모형의 적합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레버리지, 수익성, 이익의 변동성, 기업규모를 부실기업예측 모형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요 재무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 그 변수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본적정성으로는 BIS비율과 부채비율, 자산건전성으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소액연체비율

5.2 기초통계량

5.2.1 기술통계량

<표 2>, <표 3>은 각 <t-1>, <t-2>로서 영업정지 또는 건전성이 확인된 저축은행의 직전년도, 직전 년도의 재무비율의 평균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내 주고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부채비율로서 부실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결과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5.2.2 상관분석

<표 3> 상관계수(t-1)에서 BIS비율과 부채배율이 -0.788로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계수(t-2)에서는 -0.57의 부의 상관관계이다. BIS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하여 이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반면 부채비율은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표 2> 기술통계<t-1>

변 수	정상영업(n=73)		영업정지(n=7)		t-검정 (유의확률/한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LTL	15.23	13.61	42.20	1.88	0.000
BIS	17.48	24.51	1.17	6.026	0.000
LEV	88.03	21.62	101.57	2.30	0.000
CACD	197.18	113.51	168.44	99.95	0.298
DRE	86.91	27.20	59.73	16.34	0.002
TAOE	8393.00	2.90	-2.33	7.39	0.1512
LnTA	7.90	1.32	9.27	0.92	0.003
ROE	7.59	28.17	909.00	3151.86	0.055

Valid N (listwise)

<표 3> 상관계수(t-1)

		BIS	LEV	CACD	DRE	TAOE	LnTA	ROE
FLTL	Pearson 상관계수	-0.064	0.200	0.065	-0.332**	- 0.220*	-0.024	0.144
	유의확률	0.570	0.075	0.566	0.003	0.050	0.833	0.204
BIS	Pearson 상관계수		-0.788**	0.538**	-0.087	0.307**	-0.060	0.047
	유의확률		0.000	0.000	0.445	0.006	0.597	0.678
LEV	Pearson 상관계수			-0.256*	-0.133	-0.517**	-0.082	-0.102
	유의확률			0.022	0.239	0.000	0.470	0.728
CACD	Pearson 상관계수				-0.462**	-0.138	-0.247*	0.080
	유의확률				0.000	0.221	0.027	0.368
DRE	Pearson 상관계수					0.403**	0.210	0.203
	유의확률					0.000	0.061	0.480
TAOE	Pearson 상관계수						0.198	0.203
	유의확률						0.079	0.071
LnTA	Pearson 상관계수							0.123
	유의확률							0.275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 상관계수(t-2)

		BIS	LEV	CACD	DRE	TAOE	LnTA	ROE
FLTL	Pearson 상관계수	-0.175	0.164	-0.101	-0.334**	-0.261*	0.007	-0.152
	유의확률	0.120	0.146	0.375	0.002	0.019	0.950	0.179
BIS	Pearson 상관계수		-0.570**	0.464**	-0.126	0.089	-0.063	0.114
	유의확률		0.000	0.000	0.265	0.433	0.581	0.314
LEV	Pearson 상관계수			-0.151	-0.061	-0.292**	-0.052	-0.009
	유의확률			0.182	0.592	0.009	0.646	0.935
CACD	Pearson 상관계수				-0.243*	0.053	-0.179	-0.185
	유의확률				0.030	0.643	0.113	0.101
DRE	Pearson 상관계수					0.221*	0.129	0.201
	유의확률					0.049	0.255	0.074
TAOE	Pearson 상관계수						0.125	0.222*
	유의확률						0.270	0.048
LnTA	Pearson 상관계수							0.049
	유의확률							0.663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5.3 가설검증

가설검증결과를 아래 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가설 검증결과 요약			
표본수(전수조사)	가설1	가설2	가설3
80	인용	일부 인용	인용

5.3.1 단일회귀분석

t-1기 BIS비율에 의한 단일회귀분석 예측력은 90.0%이고 1종 오류(잘못된 기각) 1.4%, 2종 오류(잘못된 선택) 100.0%이다. 유의확률은 6.2%로 유의미하다.

t-2기 BIS비율에 의한 예측력은 t-1가 마찬가지로 똑같다. 유의수준이 10%미만으로 유의성은 존재한다.

t-1기 LEV비율에 의한 예측력 분석은 BIS 비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표 5> t-1기 BIS 단일회귀분석

분류표					
감시됨		예측			
		dflt		분류정확	
		0	1	%	
1단계	dflt	0	72	1	98.6
		1	7	0	0.0
	전체 퍼센트	90.0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유의확률	Exp(B)	
1 BIS	-0.04	0.062	0.963	
단계 상수항	-1.97	0.000	0.140	

<표 6> t-2기 BIS 단일회귀분석

분류표					
감시됨		예측			
		dflt		분류정확	
		0	1	%	
1단계	dflt	0	72	1	98.6
		1	7	0	0.0
	전체 퍼센트	90.0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유의확률	Exp(B)	
1 BIS	-0.06	0.089	0.942	
단계 상수항	-1.65	0.001	0.192	

t-2기 LEV비율에 의한 예측력은 정상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제대로 작동을 하였다. 영업정지로서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사전엔 정상영업으로 예측되었지만 결과로는 상호저축은행 7개 업체 전부 부실로 판명되어 100% 2중 오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7> t-1기 LEV 단일회귀분석

분류표					
감시됨		예측			
		dflt		분류정확	
		0	1	%	
1단계	dflt	0	72	1	98.6
		1	7	0	0.0
	전체 퍼센트	90.0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유의확률	Exp(B)	
1 LEV	0.019	0.162	1.019	
단계 상수항	-4.111	0.002	0.016	

<표 8> t-2기 LEV 단일회귀분석

분류표					
감시됨		예측			
		dflt		분류정확	
		0	1	%	
1단계	dflt	0	73	0	100.0
		1	7	0	0.0
	전체 퍼센트	91.3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구 분	B	유의확률	Exp(B)	
1 LEV	0.013	0.369	1.013	
단계 상수항	-3.549	0.014	0.029	

VI. 검증결과 및 해석

6.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계량적 측정도구는 최근의 자료일수록 그 신뢰도가 높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높게 나

타난다. 통계분석의 대상인 본 자료들이 최근 입수된 것일수록 이해당사자인 상호저축은행 경영층에 의한 자의적인 수치조작이 감독당국의 엄격한 준칙 범위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6.2 Ohlson 모형의 적합도

기업도산 등 판별분석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빈번히 인용, 활용되고 있는 James A. Ohlson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위하여 적합한지 여부도 정밀히 분석하였다. 조건부 로짓(Logit)분석의 경제수리 방법론을 다변량 분석(MDA;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과 관련하여 널리 제기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Ohlson은 분석기법³⁵으로 1970년대(1970~1976) 수집된 자료를 투입하였다.³⁶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레버리지, 수익성, 이익의 변동성, 기업규모를 부실기업예측 모형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요 재무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에 맞추어 자본적정성,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 그 변수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본적정성으로는 BIS비율과 부채비율이, 자산건전성으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소액연체비율이, 경영관리능력과 수익성은 총자산이익률, 그리고 유동성은 유동성비율이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예대비율이

유동성비율로 추가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적정 표준화된 기본비율을 어림할 수 있다.

6.3 원 자료(raw materials)의 특성

금융 감독기관의 사전 검증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공시된 재무수치들이다. 통계분석을 위한 재무자료들이 불완전 공시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상호저축은행들을 제외³⁷하고 전수 조사하여 자료에 있어서 표본선정의 임의성이 일체 배제되고 있다.

6.4 결과해석

검증결과를 요약³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BIS비율은 상호저축은행 사전예측 모형을 위한 건전성지표로 기존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효하다.

전수 조사 된 80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등 부실저축은행의 수치가 7개로서 이를 일반화하여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BIS비율은 상호저축은행 건전성지표로 유효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BIS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건전성 지표로서 제시해 주고 있다(<표 2>, <표 3> 기술통계량 참조).

이는 로짓(Logit) 분석으로서 정량적 통계기법의 보완으로서 정성적 FGI기법³⁹을 추가적으로

³⁵ 판별분석을 이용한 z-점수모형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0-점수모형으로 확장 발전하여 이후 Dichev(1998), Griffin and Lemmon(2002), Byoun(2007) 등 다수의 후속연구에서 부두위험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인로, 김동철, 회계정보와 시장정보를 이용한 부도예측모형의 평가연구, 2쪽

³⁶ James A. Ohlson, Financial Ratios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 111-112쪽, 1980.

³⁷ 영업정지 11개 업체 중 4업체, 정상영업 상호저축은행 79개 업체 중 6업체 제외

³⁸ 이전 연구과의 비교를 위하여 Logit 분석 중심으로 기술

<표 9> BIS 비율과 부채비율 대비 건전성 예측-관찰결과⁴²

항목		BIS비율			부채비율			
		사전 관찰(예측)		총계	사전 관찰(예측)		총계	
		적기시정조치	정상영업		적기시정조치	정상영업		
t-1	결과	영업 정지	6(85.7%)*	1(14.3%)**	7	2(28.6%)*	5(71.4%)**	7
		정상	7(20.5%)**	66(79.5%)*	73	2(2.7%)**	71(97.3%)*	73
t-2	결과	영업 정지	3(42.9%)*	4(57.1%)**	7	0(0%)*	7(100%)**	7
		정상	8(11.0%)**	65(89.0%)*	73	4(5.5%)**	69(94.5%)*	73

* 원 자료 재무수치를 근거로 감독기관 전문 인력의 직관력에 이용되고 있는 사전예측력

** 예측 오류율

로 수행한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다.

금융 감독기관 감독자의 경험에 의하면 영업 정지되기 전에 경영진의 교체, M&A 등 이미 조정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영업 정지된 경우에는 영업 정지 전 사업보고 경영공시 BIS 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평가에 유효하다.⁴⁰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판단기준인 7% 기준⁴¹은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영업정지를 사전에 경고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IS비율의 경우는 7% 기준을 아주 높게 초과하여 해당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로서 신

뢰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표 2>, <표 3> 기술 통계량).

정상영업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년 전(t-2)과 1년 전(t-1)기간의 BIS 비율은 17.9%와 17.5%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6.5%와 1.2%를 각 각 나타냈다. 2012년 5월 이전에 비하여 2012년 6월 이후엔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지표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채비율이 BIS 비율보다 부실에 대한 예측력이 더 정확하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BIS비율에 비해 그 신뢰도가 떨어져 단순히 보조지표로서는 그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BIS비율이 부채비율보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지표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원 자료 분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정상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직전(t-1), 직

³⁹ FGI 심층면접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예측모형으로 중요한 항목, 평가기준 시점이전의 공시시점간의 예측의 정확도, BIS비율이 건전성평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문 감독관으로서의 평가 등으로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유도하였다.

⁴⁰ 2015년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금융감독원 김석영, 이흥규 감사역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감독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도출된 결론

⁴¹ 7%미만의 경우 그 미달정도에 따라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가 발효된다.

⁴² 부실에 대한 예측정확도는 t-1, t-2기 별로 BIS비율에 85.7%, 42.9%, 부채비율에 의해 28.6%, 0.0%로 금융감독원 감독관들의 부실 상호저축은행 판정으로는 BIS비율에 대해 절대적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음

<표 10> Focus Group Interview 응답 결과

FGI 질문유형	핵심집단 참여자의 정리된 응답	비고
1(건전성 평가방법)	CAMELS 평가방식 ⁴³	
2(BIS신뢰실추 요인)	회계자료 조작	
3(BIS무용론, 부채비율로 대체에 대한 학계 주장)	BIS비율 여전히 유효하고 부채비율은 금융기관 부실평가론 적합지 않음	학계에서 제기된 BIS비율 무용론 FGI 참여자 대부분 모르고 있음
4(대안적 예측모형, 이유)	BIS비율, BIS비율 이외 기타 검증된 지표 없기	
5(BIS비율 신뢰회복 방안)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 BIS비율 건전성평가 지표로 제 역할 가능	
6(BIS비율 신뢰훼손 요인)	과잉낙관, 편향, 자기과시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의견표출 됨	행태재무 개념, 이해도 낮아 응답을 낮음
7(BIS비율 유효성증대 방안)	회계수치 조작 차단	

직전(t-2) BIS비율은 17.5%, 17.9%로서 정상영업으로서 예측력을 나타냈다(표2, 표3 기술통계량 참조). <표 2>, <표 3> 기술통계량에서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직전(t-1), 직전 년(t-2) BIS비율은 1.2%, 6.5%로서 2기간 시정 적기조치 대상으로서 부실도 예측이 가능하였다.

특히 영업정지 2년 전(t-2)에도 강선민, 황인태, Shun Ji Jin(2013)의 기존 연구(t-1기간만 약간 유효)와는 달리 <표 2>, <표 3> 기술통계량에서 BIS비율은 유효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부채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BIS비율은 직 전년(t-1)에 높은 예측력을 제시해 주고는 있다(1.2%). t-2기에도 건전성지

표로서는 유효성이 타당한 것으로 실증은 되고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BIS비율의 보조지표로서 그 한계를 갖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호저축은행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는 BIS비율의 유효성을 훼손한다.

상호저축은행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는 BIS비율의 유효성을 훼손한다. 이에 대한 검증은 FGI 심층면담에서 확인되고 있다.

FGI방식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관의 심층면담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감사들과의 직접 면담에 의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기시정 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징후 시 금융 감독기관의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2012년 5월 이전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에 의한 재무자료를 기초로 하여 경영공시 형태를 위한 사업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경영공시 내용은 신뢰성을 당연 수반한다. 이전의 상호저축은행의 대형 금융사고로 인하여 정치권

⁴³ 한국에서는 2002년에 도입되어 주로 금융감독기관에서 부실여부에 대한 조기예측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역량, 수익성, 유동성,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계량, 비계량지표를 결합하여 구축한 모형

에 의한 관행적인 로비 등은 상당한 정도로 차단이 되었고 회계법인과의 공모로 인한 분식회계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문별 가중치에 의한 평가⁴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BIS비율 등 재무자료들의 신뢰도를 높여 주고 있다. 정상화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도덕적인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공시절차, 회계처리 그리고 강화된 감독규제 등이 수반되어 적기 시정조치 단계에 대한 수위가 높아질수록 BIS비율은 유효하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BIS비율이 유효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1년 삼화,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실사고 이후엔 분식회계, 경영자의 자의성에 의한 BIS비율의 조작 등이 그 이전 년도들에 비하여 엄격히 차단되었다. 2012년 6월 이후 자료로서 실증된 영업정지 BIS비율은 (t-2)기 6.5%, (t-1)기 1.2%로서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 사전 건전성 예측 모형의 주요항목으로서 적합하였다(<표 2>, <표 3> 기술통계량 참조).

VII. 결 론

BIS비율과 부채비율의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그 유용성을 전수자료 검사로서 비교하였다.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조사에서는 직전(t-1)과 직 직전 년(t-2)의 2기간만을 대비하여 분석하여 직전과 직 직전 년을 기준으로 한 시기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가능하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경우에 직 직전 년(t-2)에서 영업정지가 가까워지는 직전(t-1)으로 이동 할수록 BIS 비율은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6.5%에서 1.2%). 구체적으로 7개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 직전 년(t-2)의 BIS 비율 평균값은 6.5%이고 영업정지 직전(t-1)의 BIS 비율 평균은 1.2% 이다. 이는 적기 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 BIS비율의 7.0%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서 BIS 비율과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음의 부호(t-1, t-2기 각 5%, 1% 유의 확률)로서 나타내주고 있다.⁴⁵

사회전반적인 제도, 문화 변화가 병행⁴⁶되어 야만 BIS비율 등의 유효성이 담보되어 질 수 있다. 선진금융기법이 일상화된 일부 국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어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 감독기관의 일선 현장에서는 BIS비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금융 감독당국 전문 인력들의 BIS비율을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 등 사전 부실 징후를 그 지표로서 일상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금융사고 등 대형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 그 사건 전후로 집중되고 있다. BIS비율이 유효하다는 검증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의 한계와 활용할 통계적인 기법에 대한 제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조기 예측 모형

⁴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분야에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차등화 된 가중치를 상호금융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부록 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3 참조

⁴⁵ <표 3> 기술통계-상관계수(t-1, t-2기) 참조

⁴⁶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의 개선방향-규제자의 유인을 중심으로, 양채열, 한국재무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움, 17쪽, 2011.

들의 도출을 위한 연구들이 극히 일부 행해지고 있다.

기존 논문에 대한 비교검증을 위해 인용해야 할 연구대상 자료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이전 주장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존 자료에 의하여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그 결과의 유의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기간이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BIS비율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달리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이전의 경우는 통계수치에 의한 연구결과들이 선행 연구조사 결과들과 그 내용에서 거의 유사하였을 것이다.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기존 연구와는 결론에서는 확연히 달랐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상호저축은행 감독 업무만을 전담하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BIS비율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른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으로 BIS 자체의 결함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BIS 비율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외적인 변수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소수지분자들은 정치권과의 밀접한 연계에 의한 공생관계로서 BIS비율의 임의적인 조작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그러한 공생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로 모아졌다. 자료를 분석, 연구한 결과로는 위험자산의 가중치를 높이고 소수 주주들이 자기자본 조달에 의해 단기적으로 BIS비율을 쉽게 높일 수 있는 편법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규제감독이 엄하지 않았던 2012년 5월 이전과 감독이 제도화된 2012년 6월 이후로 BIS비율에 대한 자산건전성 지표로서 유효성은 큰 차이가 있다. 도덕적 해이가 비교적 작은 최근까지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지표

를 비교 분석한 결과 BIS비율이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표로 유효하며 부채비율보다 부실의 조기예측모형으로 적합하고 영업 정지 일자에 가까운 기간의 사업보고서 경영공시가 먼 기간보다 유효성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자, 지분소유자 등의 도덕적인 해이가 없으면 BIS비율이 건전성 지표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도 현행 활용하고 있는 바젤Ⅲ 기준에 의한 BIS 자기자본규제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로 계속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인 수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그 원칙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조직체의 형식이 주로 주식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PF 등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에 대한 영업활동 비중이 그 속성상 선호될 수밖에 없다. 이전 정책에서처럼 8·8클럽 등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 충족 상호저축은행에 비하여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BIS 비율을 높일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한 윤리적 지침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에 있기 때문이다.⁴⁷

일부 논문에서 이미 실증검증을 통해 조기 부실을 예측할 수 있는 부채비율 등운 보조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정책적인 배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로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조합들이 소액 다량의 거래 시 건전성에 대한

⁴⁷ 금융감독제도 및 정책, 손성규, 박영사, 240쪽, 2012.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PF 등 쉬운 고위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경험적인 진단과 통계수치들이 일부 일치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정량적인 자료로서 특정사건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량 자체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추가적인 도출보다 기존 경영공시 지표로서 부분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강성민 등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서 응용한 영업정지와 정상영업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BIS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은 실제 상호저축은행 관행을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한다. BIS비율에 기초하여 영업정지되기 전에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전에 수행된다. 적기 시정조치 등의 단계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BIS비율은 시의 적절한 하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적인 해이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순수하게 BIS비율 산출을 위한 구성인자에 의한 BIS비율의 건전성 평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유효성은 임의 조작이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를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들이 선행 통계자료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비교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보완방법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와는 많은 차이들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현장경험이 없는 외부연구자들이 간과할 수밖에 없는 변수들을 모형으로서 그대로 활용하여 이를 진행하였다. 제도로써 일부 개선되었고 투명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

부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적 개입행위로서 금융기관 특정 이해관계자들과의 은밀한 거래로서의 결탁들이 BIS비율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 부실징후를 직전($t-1$), 직 직년 전($t-2$)이 아닌 그 이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사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었다. 본 논문에서 문제점으로만 제기하였고 직접 통계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내용들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과제로서 남겨놓는다. 특히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대리모형을 통한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계량적인 기준들이 왜곡되는 현상들에 대해 효용함수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단순히 모형만 소개한 점이다.

정성분석으로서 행위론적 재무의사결정 이론, 비대칭정보에 의한 정보경제학 등에 의한 접근도 주요한 연구 방법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References

- Gneezy, U., List, J. A., & 안기순 (역) (2014). 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 김영사.
- 강길환·김주일·안병관 (2014). 금융기관론, 탐북스.
- 강선민·황인태·Jin, S. J. (2013). BIS비율과 부채비율: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경영학연구, 42(1), 1-27.
- 김대호·문선주 (2015). 금융기관경영론, 탐북스.
- 민상기·정창영 (2012).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 배정진·김진욱 (2012). 금융의 배신, 맛있는 책, 금융 소비자협회.
- 배현웅·방성인 (2013). R과 함께하는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우사.
- 손성규 (2019). 금융감독제도 및 정책, 박영사.
- 양채열 (2011).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의 개선방향. 한국재무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움, 17.
- 양채열 (2013).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77-79.
- 이의경·김용석 (2013). 재무관리-이론과 응용, 경문사.
- 조담 (2012). 2판 금융계량분석, 청람.
- 한국은행 (2011).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 헤슈 셰프린(Hersh Shefrin)·조담 (역) (2012). 행태과학으로 본 재무관리, 도서출판 청람.
- 홍훈 (2017). 행동경제학강의, 서해문집.
- 황인태·강선민·김순희 (2011). BIS비율과 부채비율: 상호저축은행 부실예측모형.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1(2), 1-20.
-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IMF (2010).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 for the fortune of financial regulation*.
- Ohlson, J. A. (1980). Financial ratios and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109-131.
- Shefrin, H. (2007). *Behavioral corporate finance: Decisions that create value*. McGraw-Hill Irwin, pp. 3-19.
- Shefrin, H. (2012). *Behavioral corporate finance: Decisions that create value* (D. Jo, trans.). Cheongdam.

저자사항(author(s) note)

이무성(Mooseong Lee)

- 단독저자(Sole Author)
- mslmsl58@naver.com
- 광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학부 조교수 (2014.4.1-2016.2.29)
- 2010년 1월~현재: (사)아시아태평양 생명학연구원 이사장(Doctor Course Completion, Chief, Asia-Pacific Biology Institute)
- 관심분야: 재무관리, 사회적경제, 정보경제학